

88 서울올림픽 남북 공동주최 논쟁에 관한 연구*

최진환**

본 연구는 88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에 가장 치열하게 다틈던 올림픽 공동주최 논쟁에 관해 다루었다. 이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나타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와 관련해 과거의 사례에서 향후 남북 체육교류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를 위해 외교부 공개문서, 국가기록원 자료, 『로동신문』, IOC 회의록과 자서전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세 주체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국제사회 여론에 힘입어 남북 공동주최를 제안했고, 남북의 동등한 조건에서 올림픽을 치르기를 바랐다. 그러나 IOC와 남한은 북한의 제안에 반대하며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 명분을 쌓기 위해 남북 NOC 회담을 추진하였다. 이미 IOC와 남한의 초기 대응에서 그 결론이 예견되었지만, 3년 동안 회담을 했으나 북한의 공동주최론과 남한의 분산개최론을 놓고 서로 견해를 좁히지 못해 회담은 결렬됐다. 이 논쟁의 본질은 남북이 체육교류에 있어서 하나이나 개별이냐의 지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88 서울올림픽, 남북 올림픽 공동주최, 남북 체육교류, IOC, 단일팀, 남북 NOC

* 이 연구는 2020년도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연구과제 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IOC 회의록을 제공해 주신 이대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성심껏 심사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세현고등학교 교사.

1. 문제 제기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문 4조 2항에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후 정부는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와 협의를 이어 가며 대회 유치 가능성을 타진해 왔으나, 최근 IOC는 호주를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정부 유치계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¹⁾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남북은 1985년부터 3년간 4차례의 회담을 거치며 공동주최²⁾를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경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왜 실패했고, 남북의 주장은 어떻게 달랐는지 또 IOC는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다뤘는지에 관한 연구나 보고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정부의 출간물이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각각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북한의 입장을 유추하는 경향이 많았다.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 기록에는 당시 IOC 위원장인 후안 사마란치(Juan Antonio Samaranch)가 1985년 2월 1일에 남북 체육회담을 주재할 의사를 밝히자 3월에 남한이 먼저 동의하고, 북한은 뒤늦은 7월에 동의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IOC가 1985년 7월 24일에 남북 NOC 회담이 10월에 개최된다고 발표하자 북한은 7월 30일 정준기 부총리 담화를 통해 남북이 같은 자격으로 공동개최하자는 성명을 받

1) "IOC "2032 올림픽 우선협상지로 호주 선정" 남북 공동개최 먹구름," 『헤럴드경제』, 2021년 2월 25일 참조(<https://sports.v.daum.net/v/cSrH7wLkBX>)(검색일: 2021년 2월 28일).

2) 북은 공동주최, 남은 공동개최라고 표현했으나, 북한이 남한에 제한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으므로 공동주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³⁾ 이 기록만으로는 IOC가 왜 남북 NOC 회담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북한이 왜 공동주최를 주장하게 됐는가에 관해 그 배경 설명이 없다. 남한이 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 모든 노력을 했는데 아무 노력도 안 한 북한이 갑자기 종목의 반을 뚝 떼어 달라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 심지어 남북이 동등한 조건으로 올림픽을 주최하자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종대는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88 서울올림픽에 대해 국제사회와 북한의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보여줬다. 하지만, 북한의 공동주최 주장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은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사회주의권에서도 별 호응을 얻지 못하자 공동주최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⁴⁾ 언급하며 서울올림픽 보이콧 운동과 공동주최 주장의 전환이 북한에 의해 비롯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은 공산권을 비롯해 서방권에서 먼저 의견들이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은 본문 2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또한, 박경호·옥광의 연구에서는 북한이 서울올림픽 개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1983년 버마 폭파사건, 1986년 김포공항 게이트 사건,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등을 예로 들고 있다.⁵⁾ 그러나 2020년 11월 『시사 IN』은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터진 김포공항 폭탄

3) 대한체육회 엮음, 『대한체육회 90년사 I 1920~1990』(서울: 대한체육회, 2010), 386~387쪽.

4) 신종대, “서울의 환호, 평양의 좌절과 대처: 서울올림픽과 남북관계,” 『동서연구』, 제25권 3호(2013), 78쪽.

5) 박경호·옥광, “서울올림픽 개최 반대여론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1권 2호(2016), 69쪽.

테러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현장 감식을 했던 담당자가 당시 터진 폭약은 한국과 미국만 사용하는 크레모아였지만, 보안사는 폭발이 ‘북괴 소행’이라는 감식서류를 요구해 일신의 안전을 위해 조작된 소견서를 써 주었다는 것이다.⁶⁾ 이처럼 88 서울올림픽을 둘러싼 공동주최론을 두고 사안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fact)을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 최진환은 북한의 IOC 가입에 관한 연구에서 남북 체제 대결이 첨예했던 1960년대 당시 남과 북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가올림픽위원회)가 IOC와 주고받은 서신 분석을 통해 남북 체육 회담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며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⁷⁾ 이는 남북관계에서 기획된 적대감 형성과 과잉된 분단 감정으로⁸⁾ 치달으며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결과를 내왔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남북 체육사를 볼 때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갑자기 공동주최론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1963년 1월 로잔에서 남북의 당국자 대표들이 모여 단일팀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남북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보여 왔다. 단일팀 구성 문제는 남북의 주장이 대비되는 맥락을 가지고 있다. 1963년부터 1991년까지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김포공항 테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시사 IN』, 2020년 11월 6일 인터넷 기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80&fbclid=IwAR1nhOPMf-5WAeoVtjTUs-FQHjr7vNY3vS_gvEaVOnKCjim54xdV1JaMail (검색일: 2020년 11월 8일).

7) 최진환, “IOC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승인에 관한 연구”(북한 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44~176쪽.

8)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파주: 창비, 2020), 62~67쪽.

<표 1> 남북단일팀 논쟁의 변화 과정

	1963년 로잔, 홍콩회담	1979년 평양세계탁구 선수권대회	1980 모스크바 올림픽, 1984 LA 올림픽	1988 서울올림픽	1990 북경 아시안게임	1991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축구)	1991년 이후
남한	단일팀 거부	개별팀 주장	단일팀 무산 (80 불참)	개별참가 요청	개별팀 참가	단일팀 구성 성사,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 의서 서명	단일팀 구성 적극적
	상호신뢰 회복과 체육교류를 강조한 개별팀 지향 유엔 남단독(동시)가입 추진						
북한	단일팀 제안	단일팀 제안	단일팀 제안 (84 불참)	공동주최 제안	단일팀 제안		단일팀 구성 소극적
	전략적 민족 단결을 강조한 단일팀 제안 유엔 남단독(동시)가입 반대						

자료: 외교부 공개문서, 국가기록원 자료, IOC 서신, 회의록, 『로동신문』, 국내 신문 등을 참고하여 요약했다.

<표 1>처럼 1991년까지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한 논쟁의 맥락은 뚜렷했다. 그 과정에서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공동주최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1985년 IOC 주재 남북 NOC 회담은 각각의 입장과 주장이 관성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고,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주체들이 88 서울올림픽에 관한 남북 공동주최 논쟁에 관해서 어떤 배경이 있었고 또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북한 공간(公刊) 문헌, 외교부 공개문서, IOC 자료와 회고록 등의 자료에 기반하여 사실을 재구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올림픽 공동개최가 남북 평화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⁹⁾ 올림픽 공동개최 논쟁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처음으로 남북 간에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그 과정에서

9) 구갑우,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2호(2018).

다루어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88 서울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논쟁에 관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그 함의를 추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88 서울올림픽 유치에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하고, 둘째, 공동주최 논쟁의 배경과 IOC, 남북 NOC 세 주체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공동주최 논쟁이 주는 함의를 추론하여 향후 남북 체육 교류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문제는 서로가 시계열적으로 연결되어 남북의 정세와 국제 정세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이슈는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두고 논쟁 안에서 세 주체가 그 이슈에 반응하는 입장과 맥락에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남북 관계와 국내외 정치 변수를 다 분석하기에는 연구자의 역량 한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 연구법을 이용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함의를 추론하는 귀납적 연구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

2. 북한의 남북 공동주최 제안 배경

1) 남북 스포츠 체제 경쟁과 서울올림픽 유치의 함의

1969년 남북 NOC가 완전히 분리된 후,¹⁰⁾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10) 최진환, “IOC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승인에 관한 연구,”

의 북한의 사격 금메달 선(先)획득은 남한 체육계에는 충격이었고, 이어 엘리트체육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북한도 이례적으로 김일성 주석이 체육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쏟아 내며 전문체육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다음 국제스포츠타고회를 잘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¹¹⁾ 당시 문교부는 학교 운동부에 사격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체육 교과에 사격을 포함한 시간을 40% 확대할 것을 계획했으며, 각 정부 부처별 사격대회를 매년 개최할 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 또한 컸다.¹²⁾ 그 후, 남한은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 종합성적 4위로 5위였던 북한을 제쳤으나, 사격 종목에서만큼은 북한이 금메달 10개, 남한은 1개에 그쳤다. 이에 따른 사격 종목에 대한 관심은 1974년에 제42회 태릉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로 이어졌고, 1978년에는 규모 있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처음으로 치러 냈다.¹³⁾ 한편, 북한은 1977년에 제35회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1979년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진영의 국가들까지 참가하는 대회를 치러 냈다.¹⁴⁾

246~255쪽. KOC가 한반도를 대표하는 NOC였는데, IOC가 DPRK NOC를 승인하면서 남북의 NOC가 완전하게 분리되었다.

- 11) 최진환, “남북 스포츠 분단의 역사적 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승인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3호(2020), 17~19쪽.
- 12) “문교부 학교체육 강화안 마련,” 『동아일보』, 1972년 10월 5일.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반발에 부딪혀 모든 학교에 사격부를 만들지는 못했다. 이진삼, 『별처럼 또 별처럼』(서울: 황금물고기, 2016), 223쪽.
- 13) “78년 세계사격대회 서울서,” 『경향신문』, 1974년 9월 19일 68개 참가국, 1,500여명 참가, 소련과 북한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 14) 국가기록원,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35차 평양, 1979.4.25.~5.6. 전 6권(참가대책 및 초청 교섭) 1977~1978,” 관리번호: DA0745903. 북한의 단일팀 구성 요구가 성사되지 못하자 남한은 참가하지 못했다. 남한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에 평양대회를 보이콧할 것을 주문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남북의 체제대결은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서도 나타났고, 박정희 정부에서 준비되어 오던 서울올림픽 유치 사업은 10.26 사건으로 중단되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얻은 전두환 대통령은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국민을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는 묘안을 찾던 중 일본의 친한파 세지마 류조(瀬島龍三)의 조언을 계기로 다시 올림픽 유치 사업을 꺼내 들었다.¹⁵⁾ 초기에는 정부 내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정부와 민간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1981년 9월에 서울올림픽 유치를 이뤄냈고,¹⁶⁾ 11월에는 86 아시안게임까지 유치하게 되면서 대등했던 남북 스포츠 대결은 이를 계기로 균형이 무너졌다.¹⁷⁾

그러자 북한은 서울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유엔 동시가입을 위한 두 개 조건 정책과 교차 승인 실현을 위한 술책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¹⁸⁾ 북한은 올림픽도 문제지만,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남한이 공산권 국가와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과 외교관계가 확대될 것을 주시하였고, 이른바 유엔 가입과 관련하여 주도권을 남한이 쥐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남한은 유엔에서의 표 대결이 불가

15) 김재우·최지훈, “88 서울올림픽 유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3권 4호(2018), 60~62쪽; 박해남, “1988 서울올림픽과 시선의 사회정치,” 『사회와 역사』, 제110집(2016), 367쪽.

16) 정주영, 『이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서울: 솔솔출판사, 2020), 271~283쪽. 정부는 1981년 5월 현대 정주영 회장에게 올림픽 유치 민간추진위원장을 맡겼다. 그는 나고야와의 표 대결에서 정부가 당할 망신을 민간인에게 대신 당하게 하자는 발상으로 맡겼다고 회고록에 기록했지만, 정 회장 특유의 추진력과 사업가적 마인드로 본인의 사비를 들여가면서 IOC 위원들과 그 측근들의 환심을 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17) 외교부 공개문서, “1986년도 서울 아시아 경기 대회 유치 추진: 1980~81,” 전 2권, V, 2(1980), 10~11쪽; “AGF 집행위 채택 86년 아시안게임 서울 개최,” 『매일경제』, 1981년 11월 26일.

18) “올림픽운동의 리념과 어긋나는 움직임,” 『로동신문』, 1981년 12월 3일.

피한 경우를 대비해, 제3세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고 그들 국가와 정상외교를 펼쳐 갔다.¹⁹⁾ 북한은 1970년대 자주, 친선, 평화를 내세워 공산권 및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과 꾸준한 대외 관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남한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들 국가와 외교관계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남한이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들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립이 우선 과제가 되었다.

결국, 해방 후부터 남북 대결과 체제경쟁은 유엔이나 IOC와 같은 국제기구 가입 문제에서 서로 국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대결로 이어졌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1972년 북한의 올림픽 금메달은 남한의 엘리트 체육 강화로 이어졌고, 각종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사업에서도 남북이 경쟁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다. 그러한 가운데 88 올림픽 유치 사업도 남북 체제경쟁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남한은 공산권 국가와 제3세계 국가들과 외교 관계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2) 국제사회의 88 서울올림픽 장소 변경 논란

남한이 올림픽을 유치함에 따라 북한은 1982년부터 1984년까지 특정 국가의 단체나 개인이 쓴 기사들을 인용하여 ‘서울은 올림픽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는 기사를 쏟아 냈다.²⁰⁾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상황을 인용한 기사를 실었다. 그중에는 미국 『뉴욕타임즈』도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장소를

19)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2권 청와대 시절』(과주: 자작나무숲, 2017), 377~380쪽.

20) 『로동신문』, 1982.1.4., 1.13., 1.27., 2.18., 2.26., 3.14. 일본 민단, 노르웨이, 핀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미국 교포 등이 있었다.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다.²¹⁾

서울올림픽 장소 변경 이슈는 소련, 영국, 미국,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스웨덴, 말레이시아, 네팔, 탄자니아, 인도, 핀란드, 수리아, 노르웨이, 체코슬로바키아, 나이지리아, 쿠바 등 국제사회와 남한 내부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 대부분이다.²²⁾ 1984년 6월 23일 프랑스 소르본에서 열린 IOC 공식행사에서 프랑스 NOC 넬슨 파이유(Nelson Paillou) 회장은 1988년 올림픽을 서울에서 바르셀로나로 옮길 것을 제안하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²³⁾ 또한, 1984년 12월 IOC 임시 총회를 앞두고 당시 소련 NOC는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서울 선택은 부적절하다며 계속 개최지 변경을 주장했다.²⁴⁾

국제사회의 개최지 변경 여론에 영향을 받은 사마란치 위원장은 첫째, 서울이 스스로 개최권을 반납하는 안, 둘째, 서울대회를 1992년으로 연기하는 안, 셋째, 올림픽 영구 개최지 안²⁵⁾ 등을 명시해 놓고 고민하였다. 남한 정부도 1984년 4월 5일,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대책

21) “미국신문 뉴욕타임스 지가 1988년 올림픽 경기장소를 남조선의 서울이 아니라 다른곳으로 옮길것을 주장하였다,” 『로동신문』, 1984년 6월 7일; “How to Rescue the Olympic,” *The New York Times*, 1984.5.29. 이 기사는 올림픽 보이콧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올림픽 장소를 하나의 영구적인 장소에서 개최하고 지금의 한국처럼 분단된 국가에서는 올림픽 장소에서 배제하는 방법 등에 대해 언급했다.

22) 1984년 당시 『로동신문』에 1988년 올림픽 개최지 변경을 요구한다고 기사화된 국가들이다.

23)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The secret negotiations behind the 1988 Olympic games in Seoul* [Boston, New York, Toronto, London (simultaneously): Little, Brown & Company, 1994], pp.73~74.

24) *Ibid.*, p.68.

25) 매번 개최지를 선정하지 않고 상징성 있는 국가(그리스)나 도시를 정해서 계속 올림픽을 하자는 안이다.

을 논의하여 개최지 변경 불가 입장을 강하게 제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다.²⁶⁾

88 서울올림픽 유치에 관한 북한의 첫 공식 입장은 1984년 12월 11일 『로동신문』에서 정무원 강성산 총리의 담화를 통해 나타났다. 강 총리는 “원래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하여 여러 민족들사이의 평화와 협조와 친선을 도모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리념으로 삼고있는 국제적인 체육축전이다. 올림픽 경기장소는 마땅히 이러한 리념에 맞게 정치적으로 말썽이 없고 민주주의적자유가 보장되며 공고한 평화가 담보된곳으로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서울에서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국제경기들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 출전하는 문제는 변함없이 해결하려는 립장을 견지”하였다. 동시에 “우리는 올림픽 경기를 조선의 남에서 하는것도 반대하며 북에서 하는것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²⁷⁾ 이 구절이 사실상 북한이 장소 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맥락상 북한의 주장은 냉전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올림픽이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분단국 어느 한쪽에서만 올림픽이 치러지는 것에 비중을 두어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강 총리는 IOC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조선의 북과 남 사이의 대결과 영구분렬을 추동하는 일을 하지 말며 40년 동안이나 민족분렬의 비운을 겪고 있는 전체 조선인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하며 올림픽

26) 국가기록원, “(1)북한및미수교국관계, (2)LA대회북남단일팀구성노력(재미교포 중심민간단체)”(1985) 관리번호: BA0774386, 60, 69~78쪽.

27) “우리는 제24차올림픽과 전아메리카올림픽 장소문제에 대한 꾸바의 긍정적인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로동신문』, 1984년 12월 11일.

은 인류의 평화와 친선과 협조를 도모하는 국제적인 행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 담화에서 북한은 서울에서 올림픽을 하는 것을 반대 내지는 부당성은 지적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당국의 입장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산권 및 서방 국가들의 장소 변경 주장을 인용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을 알려가는 데 치중하면서 서울올림픽 유치 결과에 대응해 나갔다.

3) 국제사회의 88 올림픽²⁸⁾ 남북 공동주최 제안

남북 올림픽 공동주최²⁹⁾ 이야기는 LA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회담이 결렬된 뒤, 1984년 6월 27일 이탈리아 외무장관 안드레오티 (Giulio Andreotti)가 한국의 이원경 외무장관에게 처음으로 올림픽의 일부 종목을 북한과 공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런 형태의 협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³⁰⁾ 9월 17일 윤석헌 주불 대사,

28) 당시 북한 문헌과 공산권 주장에는 '88 서울올림픽'이라는 표현 대신 '88 올림픽'이라고 표현하며 공동주최 가능성과 서울올림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고는 맥락에 따라 두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29) 북한의 공동주최는 주관 주체가 둘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분산개최는 주최국은 하나 그대로 두고 몇 종목만 일부 도시에서 개최하는 의미로 공동주최와는 의미가 다르다.

30)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66; 외무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전 16권, V.1, 131쪽에는 안드레오티가 처음 제안한 날짜를 5월 22일로 기록하고 있다. 박경호·옥광, "서울올림픽 개최 반대여론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70쪽에는 1983년 9월경 수해 구호물자 제의와 실무회담 때 처음 공동개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박철언이 비밀특사로 처음 북한을 방문하여 실무회담을 한 시기는 1985년 7월로 서로 다른 이야기다.

주불 소련대사 그리고 서독의 호르스트 다슬러(Horst Dassler) 아디다스 사장 등 세 명이 만났다. 그 자리에서 다슬러는 88 서울올림픽 경기 중에 2~3개 종목을 북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주불 소련대사도 분산개최 제안은 북한도 찬성할 것이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³¹⁾

이러한 국제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1984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 스타다움 개장식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은 노태우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올림픽 공동주최에 관한 제안을 했으며, 1984년 9월과 11월에 ANOC(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국가올림픽 위원회연합) 총회에서 사마란치 위원장과 북한의 김유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사이에 공동주최에 대한 비공식적인 논의가 있었고, IOC는 그것에 대해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³²⁾

그 후, 1984년 11월 29일에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국가평의회 의장도 사마란치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서 남북 공동주최와 관련된 내용을 전했다. 그는 한국의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서울 올림픽은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지 못하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평화와 협력 그리고 우정 등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니 “88 올림픽은 한국 양 지역의 가능성과 이익에 따라 동등한 부분 또는 거의 동등한 부분에서 공유한다는 용감한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남북 공동주최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³³⁾

31)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1, 103쪽. 소련 NOC 대표 그라모프도 같은 견해를 밝히며 있다(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68).

32) *Ibid*, p.66, 76.

또 1984년 11월 멕시코 ANOC 총회에서 동독 NOC 위원장인 맨프리트 에발트(Manfred Ewalt)도 분산개최를 주장했다. 이 배경에는 소련의 주도로 LA 올림픽에 참가 못한 동독은 당시 폐해를 실감하며, 88 올림픽에서는 동독의 올림픽 참가 명분과 형식을 분산개최론으로 내세워 북한을 설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³⁴⁾ 이렇듯 IOC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남북이 올림픽을 공유하여 공산권 국가들도 참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올림픽 운동을 회복하자는 배경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론에 따라 1985년 2월 1일에 사마란치 위원장은 남북 NOC와 함께 회담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렇지만, 의제는 남북 공동주최문제가 아닌 남북 체육교류와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 문제로 한정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공동주최 논의가 회담의 핵심 이슈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남한 정부도 대책 회의를 통해 북한이 서울올림픽에 무조건 참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만약 북한이 분산개최를 주장하면, 서울올림픽 조직위 주관하에 수 개 종목(우리의 전력이 우세하고 비인기종목 중심)에 한해서 평양지역에 개최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회담 대응책을 마련했다.³⁵⁾

33) 윌슨 아카이브(Wilson Center Digital Archive)에서 서신을 확인할 수 있다. 피텔 카스트로가 1984년 11월 29일 사마란치에게 보낸 서신. 원문은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참조(<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16>)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사마란치 위원장의 답장 참조(<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17>)(검색일: 2020년 8월 20일).

34) 신종대, “서울의 환호, 평양의 좌절과 대처: 서울올림픽과 남북관계,” 『동서연구』, 제25권 3호(2013), 78쪽.

35)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1, 241~246쪽;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2, 28쪽. 2월 13일, 2월

남북 올림픽 공동주최 주장은 공산권 국가들에서 주도적으로 제기한 것이 맞으나 처음부터 북한이 주도적으로 나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또다시 올림픽이 파행될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그 대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서울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잘 안 되자 남북 공동주최 카드를 꺼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고 제기했다기보다는, 분단국에 내재된 갈등과 분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지한 고민 속에서 남북 공동주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4) 북한의 공동주최 주장과 남한의 반응

1984년 11월 IOC 집행위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은 “남북의 상황이 서울올림픽의 주요 문제라고 선언하고, 사전 조건 없이 로잔에서 남북 회담을 소집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가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성공하면 모든 문제는 없어질 것이며, 소련의 참가도 보장될 것”이라고 하였다.³⁶⁾ IOC는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21일, 2월 28일, 총 3차례의 관계기관 회의를 거치고 3월 7일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안을 마련하였다.

36) IOC, Executive Board, “1984-11-30 to 12-01 - Minutes EB Lausanne,” p.11. IOC 부위원장 쿠마르(Ashwini Kumar)는 “두 NOC를 회담에 나오게 할 수 있다면 격려할 일이고, 비록 최종적인 합의가 영구적이지 않더라도 가장 도움이 될 일”이라고 하였다. 루스벨트(Roosevelt) 집행위원회도 “두 나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련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북 NOC 회담에 찬성한다”고 말했으며, IOC 부위원장 파운드(Richard W. Pound)의 발언에서도 “IOC는 위험하지 않은 일이라고 동의했으며, 소련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했고, 따라서 통합의 요소로서 올림픽 대회의 이례적

참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였다.

국제사회에서 공동주최 논의가 나오자 남한 정부 입장은 1984년 11월 북한이 IOC 주재 남북 NOC 회담 수용 의사를 밝힌 후, 그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 기본 방향은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려는 북측 공작의 일환이므로 우리측은 이를 수락할 수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보이도록” 한다는 것으로 정해졌다.³⁷⁾

북한은 1985년 7월 30일 담화를 발표하여 남북이 88 올림픽을 공동주최하여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무원 정준기 부총리는 담화에서 분열된 조선의 어느 일방에서만 올림픽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조선의 영구 분열로 이어지며,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 것이고,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 명칭은 ‘조선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조선 평양-서울 올림픽경기대회’로 하자고 제안했으며, 경기도 반반씩 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했을 때 조선의 영구 분열을 막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 보이콧과 관련된 올림픽 운동의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방도라고 하며 공동주최의 의의를 밝혔다.³⁸⁾ 공산권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올림픽 공동주최 여론에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피델 카스트로 의장이 제안했던 남북의 ‘동등한

인 압박이 취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37)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1, 144쪽.

38)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는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1985년 7월 31일.

부분에서의 공유’에 관한 생각을 근거로 삼아 남북이 동등한 조건에서 88 올림픽을 공동주최하자고 제안했다.³⁹⁾

북한의 공동주최 주장에 대해 남한 언론에서는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북한의 주장은 올림픽 현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서울과 평양처럼 전혀 상이한 국가체제의 두 도시에서 분산개최는 IOC 현장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서울은 개최 부적격지라고 하면서 서울과 평양이 공동개최를 하면 부적격지가 적격지로 둔갑하는 것이냐는,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이었다.⁴⁰⁾ 첫 번째로 언급한 올림픽 현장 위배론은 IOC 총회에서 승인하면 법적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남한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⁴¹⁾ 그리고 올림픽현장에 의하면 IOC가 인정하는 경우, 개최국의 다른 도시에 경기장을 분산하여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었다.⁴²⁾ 두 번째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앞서 보았듯이 국제사회에서 개최지 변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대안으로 남북 올림픽 공동주최 안이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이영호 체육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주최 제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하였다. 회견의 주된 내용은 “세계평화의 대제전인

39) 이는 윌슨 아카이브(Wilson Center Digital Archive)에 황장엽이 불가리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정책 및 국제관계 부서장 게오르기 스토야노프(Georgi Stoyanov)에게 쓴 편지. 원문은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65256> (검색일: 2020년 8월 20일).

40) “북한의 『올림픽 음모』,” 『경향신문』, 1985년 8월 1일.

41)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1, 105~106쪽.

42) 위의 문서, 120쪽. IOC 사무국장 모니크 베를리우(Monique Berlioux)는 남북한을 한 나라의 두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조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추진과 개최를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는 반민족적 책동으로 단정한다”라고 밝히고 “이러한 파렴치한 계약에 대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⁴³⁾ 또한, 로잔에서 열릴 남북 NOC 대표자 회담을 앞두고 남한 정부는 대책 회의를 갖고 “88 서울올림픽의 공동주최와 분산개최는 여하한 경우에도 수락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2~3 종목의 분산개최(공동주최가 아님) 문제만을 의제로 논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⁴⁴⁾

북한은 국제사회 여론에 힘입어 올림픽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평화와 친선을 추구해야 하며,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올림픽 유치권을 따낸 남한과의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며 공동주최를 제의했다. 그러나 남한은 처음부터 올림픽 공동주최 주장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판단했으며, IOC와 ‘88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공동의 목표로 삼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수용하려는 취지에서 남북 NOC 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43) “북한 88 오륜 정치 오용 이 체육장관, 공동개최제의 철회요구,” 『매일경제』, 1985년 8월 2일.

44)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1, 106쪽.

3. IOC 주재 남북 NOC 회담(1~4차)

1) 회담 전 상황

IOC 주재 남북 NOC 회담이 시작되기 3개월 전, 1985년 7월 11일 남한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88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차관급 비밀접촉을 시도했다. 남북 대표(박철언, 한시해)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만남을 이어 갔지만, 그해 10월 부산 앞바다 간첩선 침투 사건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중단시켰다. 당시 박철언 특사는 대통령의 태도가 바뀐 것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급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 후로도 북한과의 비밀접촉은 올림픽 이후까지 이어갔다.⁴⁵⁾ 이는 88 서울올림픽을 두고 남북이 서로의 상황을 비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채널이 작동했던 셈이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회담이 열리기 전인, 1985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을 방문해서 노태우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과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공동주최 제안에 대해 두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는 북한에서는 결코 올림픽 경기가 없을 것이다. 둘째는 북한이 로잔 회담을 선전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IOC 부위원장 리처드 파운드(Richard W. Pound)는 “IOC는 북한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협상을 확대하며, 결국 북한이 IOC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하였다. 또 “북한에 배정될 경기종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끝에 가서는 선수와 관계자

45)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서울: 랜던하우스중앙, 2005), 151~216쪽.

그리고 관중과 언론 등 필요한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에서 북한은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⁴⁶⁾ 결국, IOC는 남북 공동주최에 대해 처음부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회담 방향과 결과를 미리 결론지어 놓고 북한을 로잔으로 불러들인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회담은 시간을 벌기 위한 계획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산권 국가들의 보이콧 선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올림픽 참가 명분을 쌓아가는 계획에서 회담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IOC 주재 남북 NOC 세 주체 회담(1985.10~1987.7.)

회담 과정에 있었던 실제적인 논의는 대부분 종목 배분에 관한 것이었고, 1차에서 4차까지 전개된 공동주최의 전제와 종목 수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북한의 공동주최 안의 핵심은 대회 명칭에 평양이 들어갈 것과 평양과 서울에 동등한 올림픽조직위원회 설치 주장이다. 이에 남한은 그러한 공동주최 주장을 철회할 것과 북한 독자적인 개별 국가로 올림픽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4차례의 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한 여러 종목 중에 축구와 탁구, 양궁은 특히 강조된 종목이었다. 이에 관해 남한은 탁구는 처음부터 2~3종목 안에 포함했지만, 축구와 양궁은 입장의 미묘함을 보였다. 즉, 축구는 예선전은 북에서 하나 결승은 남에서 해야 한다거나, 양궁은 메달 가능성이 높으니 북한에 주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논의이다.

46)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94.

<표 2> IOC 로잔 회담에서 논의된 남북 공동주최 전제 사항과
제안 올림픽 종목 수

회담	북측		남측	
	전제	제안 종목 수	전제	제안 종목 수
1차 (1985.10.8~9)	명칭: 평양과 서울 함께 표기 종목 수: 동등분배 조직위원회구성 등	10개	공동주최 주장 철회 북한 단독 참가 요청 등	2~3개
2차 (1986.1.8~9)		10-8-4개		2~3개
3차 (1986.6.10~11)		5~6개		2~3개
4차 (1987.7.14~15)		8개		2~4개

자료: 외교부 공개문서와 Richard W. Pound(1994), *FIVE RINGS OVER KOREA*, 『로동신문』 등을 참조하여 요약했다.

(1) 1~3차 회담

IOC 주재 남북 NOC 1차 회담은 1985년 10월 8~9일에 있었고, 세 주체의 회담은 전체 회담, IOC와 각각 NOC 간의 개별 회담 그리고 마지막 전체 회담순으로 진행했다. 남북의 NOC만 따로 만나 회담하지는 못했다. 남측, 북측 각각 6명씩 대표단으로 참가하였다.⁴⁷⁾

북측 대표 김유순 위원장은 공동주최의 원칙은 ‘88 올림픽은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훌륭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올림픽은 적대감과

47)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104;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4, 31~39쪽. 김중하(NOC 위원장), 장충식(NOC 부위원장), 최만립(NOC 부위원장), 이종하(대학스포츠포럼), 임태순(남북대화사무국), 남정문(안기부) 총 6명이 대표로 참가하였고, 북측은 김유순(NOC 위원장), 진충국(외무성 출신 NOC 부위원장), 한장은(유엔 주재 대표부 출신 NOC 위원), 안복만(사로청출신 NOC 위원), 장웅(NOC 사무부국장), 조명환(외무성 출신 NOC 위원) 등 6명씩. 4차 회담에서만 북한은 안복만 대신 박천일이 참석했고, 남한은 장충식과 남정문 대신 김삼훈과 박수창이 참석했다.

대립, 분열이 아닌 긴장 완화와 통일을 위한 친선과 협력의 올림픽이
 여야 한다는 점, 모든 회원의 이익에 기여하고, 특정 회원조직이나 소
 수의 회원 조직 또는 여러 회원 조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림
 픽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하며 구체적 안을 10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
 였다.⁴⁸⁾ 북한의 제안은 실질적으로 1981년 바덴바덴의 서울올림픽 유
 치의 모든 원칙을 다시 세우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칭과 대회 운영
 방안 등 북한의 제안은 남북의 동등한 대우와 공평한 분배에 초점이
 맞춰졌다.

남측 대표 김종하 위원장은 기조 발언에서 올림픽 개최지 장소 변
 경 국제 여론을 의식한 듯 “1981년 서울이 선정됐을 때 IOC 위원과
 국제스포츠연맹, 서울을 방문했던 국가올림픽위원회 등이 서울이 올
 립픽 개최지로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만족”했으며 “1985년 베를린
 IOC 총회에서 SLOOC(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보고서는 호평을 받았
 다”라며 서울올림픽의 준비과정이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북한 선
 수들도 서울올림픽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
 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단독 참가를 요청했다. 회담 후 남한
 보고서에는 공동주최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2~3개 종목
 을 배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개폐회식에
 각각의 국기를 들고 동시 입장 방안을 제시했다고 기록했다.⁴⁹⁾

사마란치 위원장과 북측대표 김유순 위원장의 단독 회담에서 김
 대표는 북한에서 양궁, 유도, 육상, 체조, 역도, 배구, 탁구, 핸드볼,
 사격, 수영 등 10개 종목을 제안했다. 사마란치 위원장은 받아들일 수

48)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p.105~106.

49)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4, 96~97쪽. 1차 회담 후, 영문으로 된 보고서이다.

없었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북한 내 일부 행사 개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하였다. 이 발언에 대해 북한은 IOC가 북한과 남한이 올림픽을 공동개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받아들였으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어 회담은 설명에 재설명을 이어갔다고 기록하였다.⁵⁰⁾ 당시 사마란치 위원장과 노태우 위원장은 회담의 방향성, 의제, 회담의 결론 등을 사전에 조율했고, 남한 정부와 사마란치 위원장 면담에서 회담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회담은 끌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⁵¹⁾

1차 회담 후, 북한은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수많은 뿔럭불가담나라 및 제3세계나라들은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방나라들까지도 우리의 공동주최안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으며 그것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 (남한은) 말로는 대화요 통일이요 하지만 실제상은 그 간판 뒤에서 무한정 시간을 끌면서 ‘두개 조선’ 조작에 유리한 구멍을 뚫고 있다는 것을 립증해주고 있다”라며 올림픽 뒤에 다른 정치 분열적인 의도가 있음을 강조했다.⁵²⁾ 남한은 북한의 단독 올림픽 참가를 시종일관 주장했고, IOC는 남북 NOC 회담을 이용해 공산권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북한은 공동주최만이 남북의 분열을 막고 올림픽 운동을 구원할 방도라는 주장이었다. 세 주체들의 이러한 1차 회담의 기조(의도와 방향성)는 4차 회담까지 진행되는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50)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p.113~114.

51)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4, 91~93쪽.

52) “올림픽공동주최안은 실현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1985년 10월 21일.

1차 회담 후 1985년 11월 14~16일에 사마란치 위원장도 참석한 공산권 체육장관회의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소련, 쿠바 등의 NOC 대표들은 공동주최안을 지지했으나, 어떤 방식으로 지지할지에 대한 것은 성명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의장만이 적극적인 입장을 내세웠지만, 대체로 1980년과 1984년에 발생한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재발을 피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로 나타났다.⁵³⁾ 여기서 사마란치 위원장은 공산권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차 회담은 1986년 1월 8~9일에 열렸다. 이 회담 안에서는 남북 단일팀 출전이 논의되었고, 종목 논의에서는 남북을 오가는 사이클 경기가 논의되었는데 북한은 특히 축구 종목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FIFA 예선전에 불참한 북한이 FIFA로부터 88 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올림픽 주최국은 축구 경기 자동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참가 신청을 따로 내지 않았다고 했다.⁵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축구 경기 1개조 전 경기와 결승전 경기를 배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였다. 남한과 IOC는 2~3개 종목 이상은 안 된다는 주장을 지속하며 탁구, 양궁 등을 제시했으나, 남측 대표는 다시 서울 본부에 훈령을 요구하여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탁구와 펜싱으로 종목을 바꾸고 축구 예선 경기 일부만 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⁵⁵⁾

53)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p.122~123;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5, 49쪽.

54)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179.

55) *Ibid*, p.182.

2차 회담이 끝나고 북한의 김유순 위원장은 평양에 올림픽촌(마을) 건설에 착수했고, 축구, 양궁, 탁구 세 종목에 대한 시설 준비도 시작했다고 했다.⁵⁶⁾ 이것은 1986년 7월에 제13차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가 확정되자 88 올림픽 공동개최와 더불어 체육 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건설사업이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⁵⁷⁾

한편, 1986년 4월 12일 로잔에서 사마란치 위원장과 전두환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면담이 있었다. 여기서 전두환 대통령은 사마란치 위원장에게 최근에 회담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IOC는 아무 것도 주지 말아야 하고, 도발을 허용해서도 안 되며, 위협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자신을 믿어도 좋다고 하며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김일성 주석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도 알고 있다”라고 했다.⁵⁸⁾ 전두환 대통령의 이 같은 안보 자신감을 내보였지만, 미국과 남한 정부는 88 서울올림픽을 교란, 방해하기 위한 북한의 책동이 강화될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이어 가며 안보 불안을 조성했다.⁵⁹⁾ 이것은 곧 한미군사훈련 등 군사력 강화의 발판을

56) *Ibid*, pp.160~161.

57)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북남 올림픽공동주최안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로동신문』, 1987년 3월 22일.

58) Samaranch, Juan Antonio and Doo-Hwan Chun,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INTERVIEW WITH CHUN DOO-HWAN ON NORTH KOREAN THREATS TO THE 1988 SEOUL OLYMPICS,”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75>(검색일: 2020년 8월 25일). 유럽 순방 중 로잔에 들러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p.168~169. 그리고 4월 21일 사마란치 서울 ANOC 총회 참석.

59) “북한 『88』 교란 책동 위험증대,” 『경향신문』, 1986년 3월 11일; “북한도발 억지

제공하게 됐다.⁶⁰⁾

한편, 루마니아 출신 알렉산드루 시페르코(Alexandru Sipercu) IOC 부위원장은 남북 공동주최 논의가 북한에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됨을 의식하고 남한 정부를 설득하기도 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남과 북을 방문하며 양쪽의 의견을 듣고, 남측이 북측의 처지를 고려해서 5~6개 종목까지 할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길 원치 않으며, 그 고립이 위험한 행동을 할까 우려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⁶¹⁾

1986년 6월 11일 3차 회담이 끝나고 북한의 김득준 올림픽위원회 부회장은 사마란치 위원장이 남북 NOC에 보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뒤, 6월 2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번 3차 회담은 북한으로서는 2개 종목을 할애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 올림픽을 통해 남북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통일 실현의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동주최안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⁶²⁾ 이번 회담이 IOC와 남한에 의해 북한의 공동주최안이 왜곡되어 가는 상황을 지적했다.

남한은 1986년 6월 3차 회담 후, 사마란치 위원장과 남측 대표와의 면담에서 자신이 보기에 이번 IOC 측의 제안에 대해 북측은 수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남측은 답신에서 아무 조건 달지 말고 ‘수락한다’

전략 세워야,” 『동아일보』, 1986년 3월 26일.

60) “북한, 88대회 방해 가능성,” 『매일경제』, 1986년 3월 11일.

61)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6, 130~134쪽.

62) “올림픽경기대회가 나라의 분열을 고착시키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김득준부위원장의 담화,” 『로동신문』, 1986년 6월 22일.

라고만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어차피 IOC나 남한은 북한이 25,000명의 올림픽 가족에 대해 국경을 개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마지막 제안서의 내용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⁶³⁾

한편, 1986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이 치러졌다. 외국 선수들이 입국하던 9월 14일에는 김포공항 게이트에서 5명이 사망하는 폭탄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전개했다.⁶⁴⁾ 그러나 9월 21일 『로동신문』에서는 남한 정부는 “아무 근거도 없이 공화국의 소행이니 그 사측에 의한 것이니 하면서 공화국에 적대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⁶⁵⁾ 이와 관련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수십 년을 지나오다, 2020년 11월 『시사 IN』 저널에는 의미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현장 감식을 담당했던 심동수 박사에 의하면 당시 터진 폭약은 한국과 미국만 사용하는 크레모아였지만, 보안사는 폭발이 ‘북괴 소행’이라는 감식서류를 요구해 일신의 안전을 위해 조작된 소견서를 써 주었다는 것이다.⁶⁶⁾ 이 폭발 사건으로 인해 86 아시안 게임의 경계는 삼엄해졌고, 남북의 공동주최 명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

(63)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8, 5, 77쪽.

(64) “‘평’ 폭음에 5-6번 게이트 박살,” 『경향신문』, 1986년 9월 14일.

(65) “아세아경기를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는 괴뢰도당의 모략책동을 규탄한다,” 『로동신문』, 1986년 9월 21일.

(66) “김포공항 테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시사 IN』, 2020년 11월 6일.

(2) 4차 회담 후 북한, 남한과 단독 회담 제안

IOC는 1987년 2월 로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 북한 대표들을 참석시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은 IOC 집행위원회에 북한 NOC 대표들이 들어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IOC는 완전한 두 개의 종목과 두 개의 특정한 경기를 제안한 것은 역사적인 제안이니 이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랐다.⁶⁷⁾ 여기서 북측 김유순 위원장은 1개 조의 축구 예선전과 관련하여 15만 명 수용 능력을 갖춘 축구 경기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축구 종목에 대한 배정을 또다시 요구했다. 게다가 IOC가 제안한 종목만 개최하면, 평양에서 열리는 대회는 서울올림픽의 부속 경기가 되며, 평양은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로 간주되어, 무엇보다 남한이 한반도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는 정치적 입장을 강조했다.⁶⁸⁾ 이러한 고민은 북한의 로동신문에서도 그대로 발견된다. 즉, 김득준 부위원장의 담화에서도 “결국 우리 지역의 도시에서 하게되는 경기를 남조선의 지방도시에서 하는것처럼 보이게 만들자는것이다”라며 북한의 위상을 격하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

남측 김종하 위원장은 1987년 4월 24일 IOC 집행위원들과 회담을 하고 4차 회담 날짜를 결정했다. 외교부 공개문서에는 “IOC 측은 북한을 회담에 계속 묶어 두는 것이 88 서울올림픽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체육 회담을 지속해 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남측 대표단은 “사마란치의 4차 회담 개최 요구에 동의한 대신 회담 일정을 되도

67) IOC, Executive Board, “1987-2 - Lausanne - Executive Board Minutes.pdf,” pp.30~34.

68)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210; IOC, Executive Board, “1987-2 - Lausanne - Executive Board Minutes.pdf,” p.26.

록 지연시키려는 우리측 입장을 관찰하여 회담 일자를 7.14~15로 합의하였다”고 기록했다.⁶⁹⁾

1987년 4월 26일 사마란치 위원장은 북측 김유순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1986년 6월 3차 회담의 IOC 제안에 북한이 원론적으로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1987년 7월 14~15일까지 로잔에서 제4차 남북 NOC 회담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IOC는 국경 개방과 개·폐막식 참석 그리고 서울 경기에 참가해야 한다는 세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제안했다.⁷⁰⁾ 결국, 남한과 IOC는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며 북한에 대응해 나가는 협상전략이었다.

1987년 5월 27~29일에는 시페르코(Siperco) 부회장과 알랭 쿠파(Alain Coupat) 보좌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경기장 시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며, 평양의 종합 경기장과, 평양 외곽에 약 10개의 경기장과 스포츠 홀이 평균 2만 5천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광대한 스포츠 단지가 거의 준비되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⁷¹⁾ 북한도 광복거리 건설과 숙소로 사용될 청년려관 건설을 다그치며, 제13차 청년학생축전을 위한 건설이라고 강조하였다.⁷²⁾ 또 각종 경기 시설이 몰려 있는 안골체육촌(현재 청춘거리)과 룡라도 경기장 건설 등 올림픽 경기를 위한 체육시설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다.⁷³⁾ 당시 국제탁

69)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10, 88~91쪽.

70) IOC, Executive Board, “1987-4 - Lausanne - Executive Board Minutes.pdf,” pp.16~19.

71)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9, 66쪽;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221.

72) “모두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대상건설에로!,” 『로동신문』, 1987년 5월 13일.

구연맹(ITTF) 회장인 일본인 이치로 오기무라(Ichiro Ogimura, 荻村伊智朗)도 1987년 6월 중순 북한을 방문하고 와서 북한은 IOC 회담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는 괜찮았다고 보았으며, 제2공항도 준비하고 있다고 사마란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⁷⁴⁾

4차 회담의 관심은 개최도시가 서울, 평양 두 개 도시로 되는지에 쏠렸지만, 사마란치 위원장은 합의 가능성이 적었음을 알고도 회담을 계획대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북측 김유순 위원장은 종목 8개 배정, 대회 명칭에 평양 삽입, 개폐회식 따로 개최, 평양 조직위원회 구성, TV 중계권 개별 협상, 북남 자유 왕래 등의 1차 회담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공동주최 성공을 위해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합의에 이르게 하려면 기존 회담 형식에서 벗어나 남북 양측 간의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였다.⁷⁵⁾

남측 대표 김종하 위원장은 북한 종목 배정 문제는 완전한 2종목과 일부 2개 종목을 북한에 추가 배정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제 북한이 해결해야 할 일은 올림픽 가족들의 자유로운 여행, 대회 조직과 경기 운영 등 IOC 제안에 근거해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⁷⁶⁾ 4차 회담에서도 남북 NOC의 입장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1차 회담에서 제시되었던 공동주최나 분산개최나 의 원론적인 논쟁이었고, 북한은 IOC를 제외한 남북 간의 단독 회담으로 남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남한은 북한과 단독 회담을 거

73) “조선에서 올림픽경기대회를 조직할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체육시설들을 건설,” 『로동신문』, 1987년 6월 18일.

74)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p.226.

75) *Ibid*, pp.242~245.

76) *Ibid*, pp.245~246.

절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⁷⁷⁾

3) 4차 회담 후, 군사적 긴장과 북한의 불참 선언

1987년 7월 15일 4차 회담이 끝난 뒤에도 남북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IOC는 1987년 9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올림픽에 참가할 회원국들에 초청장 발송식을 치렀다. 각국의 NOC는 1988년 1월 17일까지 올림픽 참가 여부 회신을 보내야 했다. 4차 회담 후에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과의 단독 회담을 시도했지만, 남한은 서신을 늦게 받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회담을 거부하였고, 북한은 1987년 10월 23일 남한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새로운 정부와 계속 이어 가기로 결정했다.⁷⁸⁾

한편, 남한의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사마란치 위원장은 1987년 9월 29일 미국 방문에서 개스턴 시거(Gaston J. Sigur) 동아태 차관보와 면담을 통해 팀스피릿 훈련(T/S)을 중지하거나 축소하길 원했지만, 시거는 미국의 대한민국 안보 공약에서 T/S 훈련의 상징적 효과를 생각할 때 동 훈련의 중지나 축소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⁷⁹⁾ 이와 함께 남한 언론은 북한의 ‘남침’설에 대한 보도를 계속 내보내며 국가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⁸⁰⁾ 심지어 남한 정부는 88 서울

77)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로동신문』, 1987년 9월 16일;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11, 89, 111-112쪽.

78) 조남훈, 『조선체육사 2』(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2), 358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담화,” 『로동신문』, 1987년 10월 24일.

79)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11, 203-206쪽.

올림픽 방해 시도로 북한이 금강산댐을 개발하여 수공 남침을 계획한다고 불안을 조성하여 평화의 댐을 짓기 위해 국민 대상으로 성금까지 모은 사례도 있었다.⁸¹⁾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제24차 올림픽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 미국의 육해공 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 있다면서 남한이 ‘남침 위협’을 떠들며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이를 규탄하였다.⁸²⁾ 또한 북한은 ‘남침’설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하며, 공동주최는 남침이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⁸³⁾

IOC는 1988년 1월 10일까지 167개 NOC 중 10개의 NOC를 제외하고 소련, 동독, 중국 등 공산권의 참가가 확정되자 사마란치 위원장은 안도하였다. 북한은 1988년 1월 12일 올림픽 불참 성명을 발표하였고,⁸⁴⁾ 쿠비는 1월 13일에 불참을 통보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니카라과, 알바니아, 세이셸 등 6개국이 최종 불참을 통보했다.⁸⁵⁾

공동주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IOC의 법률 고문 새무얼

80) 1987년 9월 9일 『경향신문』의 한 기사에서는 “아직도 남침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무장 간첩을 보내고 동족의 축제(88대회)에 재나 뿌리려는 북한의 김일성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9월 15일 동아일보의 한 기사에서는 “북한이 무력남침노선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데 협력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는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9월 18일 매일경제의 한 기사에서는 “북괴의 수공남침에 대비, 건설중인 평화의 댐이 진입도로 등 선행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와 같이 북한의 ‘남침’설에 대한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81) “본댐공사 10월 초 착공,” 『매일경제』, 1987년 9월 18일.

82) “군축은 평화통일의 선차적 요구,” 『로동신문』, 1987년 9월 20일.

83) “올림픽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군사소동,” 『로동신문』, 1987년 10월 14일.

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성명,” 『로동신문』, 1988년 1월 12일.

85) 마다가스카르는 올림픽 개회식 5일 전 불참 의사를 밝혀 실제로 불참국은 7개국이다.

피사르(Samuel Pissar)가 중재자로 등장한다.⁸⁶⁾ 그가 1988년 5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내용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남북과 IOC 간의 교섭에서 열쇠는 한국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종목 몇 종목, 공동주최라는 표현,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사르 고문은 노태우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에게 고대 그리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올림픽 기간 중 군사적인 위협과 정치적 비난을 중지하는 휴전 제의를 권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한국의 현 심리 상태는 너무 냉혹하다며 한국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북한을 창피하게 하는 등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한국이 가지고 있는 큰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융통성 있는 접근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았다.⁸⁷⁾ 이 제안에 대해 1988년 7월 20일 노태우 대통령은 답장에서 지금까지 회담 과정에서 언급했던 원칙을 재강조하면서 피사르의 구상이 IOC의 기본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에 의구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7월 7일에는 남북한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협력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특별선언을 내외에 천명하였다고 하며, 마지막까지 문호를 개방해 놓고 북한의 참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⁸⁸⁾ 결국, 7.7선언은 국제사회와 북한 그리고 남한이 88

86) 사무엘 피사르는 폴란드 태생 미국인이며, IOC와 남북 NOC 회담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87)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12, 45~49쪽: Samuel Pissar, “LETTER FROM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O FOH ROH TAE-WOO WITH A PROPOSAL FOR FURTHER INITIATIV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522>(검색일: 2020년 9월 8일). 실제 서신은 사마란치에 의해 6월 30일에 전해졌다.

서울올림픽을 두고 상호작용하여 빚어낸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의 해상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과 소련의 무기들을 북한으로 들여오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먼저 불가침 선언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회 대표자 회담 등이 올림픽 이후로 미뤄지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올림픽 참가 문제도 다루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북한의 최종 불참 선언은 1988년 9월 2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성명을 통해 서울에서 단독 강행되는 올림픽 경기에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참 의사를 전했다.⁸⁹⁾

결국, 북한은 남한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 볼 수 있다는 기대로 모든 일정을 유예했으나, 새로운 정부 또한 공동주최에 대한 원칙이 바뀌지 않아 북한의 기대는 수포가 되었다. 이미 남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서울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르려는 조치로 미국 군사력이 증강되고 한미 군사훈련이 강화되는 등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높여 갔다.

88)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V.12, 75~78쪽. 노 대통령 답장은 7월 9일에 초안을 만들고 7월 20일에 발송됐다.

89) “우리는 서울에서 단독강행되는 올림픽경기에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성명,” 『로동신문』, 1988년 9월 4일. 북한이 1988년 1월 12일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IOC 일정에 따른 불참 통보였다면 그 사이 남한 내에서 대학생과 해외 동포를 중심으로 남북 공동주최 요구가 다시 일기 시작했고, 다양한 남북 회담(연석회담, 국회회담 등)을 통해 공동주최 문제를 다시 논하러 하였으나 이마저도 잘 안되었다. 또한, 남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안보 위기를 느낀 북한은 상호불가침선언과 군축 협상 등을 제시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따라서 북한은 1988년 1월 이후에는 공동주최의 적극성은 떨어지고 1989년 청년학생축전 준비에 총력을 쏟았다고 판단한다.

**<표 3> 88 서울올림픽 남북 공동주최 논쟁과 관련한
세 주체의 입장 및 주요 일정 정리**

	1981~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남한	• 1981년 9월 서울 올림픽 개최지 확정 • 개최지 변경은 올림픽 헌장 위배, IOC 원칙 강조	•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최우선 목표, 공동주최 주장은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공작으로 판단 • 1985년 IOC의 제안에 따라 2~3개 종목 분산 개최 가능성 타진 • 1985~1987년 IOC와 협조, 공동(분산) 개최 논쟁 지속 • 1986년 4월 21일 서울 ANOC 회의 개최(공산권 국가 참가) • 1987년 7월 4차 회담 후 북한의 단독 회담 제의 거부, 공동주최 주장 철회 요구, 북한 개별팀 참가 요청 •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최, 공산권 포함 159개국 참가				• 남북단일팀 구성 회담 수용, 재야 인사 불법 방북 등 공안 정국, 국회 회회담, 고위당국자 회담 개최
	• 군사적 이슈	• 북한의 남침(예정)설 등장, 1986 김포공항 폭발사건, 올림픽 방해를 위한 북한의 수공 침략설, 올림픽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미 군사력 증강				
	• 외교적 측면	• 사회주의권 국가 및 비동맹 국가와 외교 강화, 1989년부터 유엔 단독 가입 추진				
북한	• 공산권, 제3세계 비동맹국, 미국, 프랑스 등 88 올림픽 장소 변경 제기	• 피델 카스트로 ‘동등한 부분에서의 공유’ 평화와 친선의 올림픽을 위한 남북 올림픽 공동주최 주장 • 1985년 7월 30일 올림픽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공동주최 주장 • 1985~1987년 평양 명칭 사용, 인구 비례 6~10종목 배정 주장 • 1986년 제13차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유치, 숙박 및 경기장 건설 • 1987년 7월 15일 4차 회담 후 남한과 단독 회담 요청 • 1987년 10월 23일 12월 대선 후 IOC 체육 회담 재개 성명 발표 • 1988년 9월 2일 올림픽 불참 선언				• 남북 단일팀 구성 회담 제안, 제13차 평창 개최, 남북연석회의 국회 연석회의 3차 회담, 군사회담제안
	• 군사적 이슈	• 남침(예정)설 부인, 한미 군사훈련 반대, 군축 제안				
	• 외교적 측면	• (유엔 단독가입, 영구 분열, 미국의 두개 조선 정책) 반대, 사회주의 및 제3세계 비동맹국의 올림픽 공동주최 지지				

IOC	• 국제사회의 서울 올림픽 장소 변경 주장 제기에 따른 IOC 원칙 입장 강조	• 공산권 참가 유도를 위한 국제사회 여론 수용, 88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가 최우선 목표 • 1985년 2월 남북 NOC 회담 제안 및 10월 회담 개최 • 1985년 11월 공산권 체육장관 회의 참가 서울올림픽 홍보 • 1985~1987년 4차례 회담을 거치며 북한의 공동주최 불가, 분산개최로 2~4개 종목 배정을 위한 논의 전개 • 1986년 IOC 남북 방문 협상 중재 노력 • 1987년 9월 17일 올림픽 조정장 발송 • 1988년 1월 북한과 쿠바 외 4개 국가 올림픽 불참 의사 • 1988년 서울올림픽, 소련, 동독 등 공산권 국가 참가	
	• 외교적 측면	• 공산권 보이콧 선제적 차단과 모든 회원국 참가를 위한 남북 NOC와 3자 회담 개최, 한미 군사훈련 연기 요청, 피사르의 제안	

1986년 김포공항 게이트 폭발 사건과 수력 침공을 방어하기 위한 평화의 댐 논란 등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며 모두 북한의 서울올림픽 방해 시도로 해석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에 대해 과잉된 적대감을 조성했고, 남북 올림픽 공동주최 논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IOC의 법률 고문인 피사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남북의 중재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점은 현시점에 서도 상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4. 결론: 공동주최 논쟁의 함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88 서울올림픽에서 남북이 가장 치열하게 논쟁했던 ‘올림픽 공동주최’ 문제에 관해서 남과 북 그리고 IOC의 세 주체 입장에

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그 함의를 추론하고자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로 88 서울올림픽 유치 사업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 스포츠 대결과 체제 경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쿠데타로 시작된 제5공화국은 초기에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올림픽 유치를 이뤄냈지만, 남한의 불안한 국내 정치와 분단국가라는 조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개최지 변경에 대한 요구를 받았으며 IOC와 남한 정부는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동의하고 공동 대응해 나갔다.

둘째로 기존 연구에서는 88 서울올림픽 공동주최 주장이 북한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그 근원지는 공산권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여론에 의해 형성된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올림픽 공동주최론은 남북이 동등한 조건으로 대회 명칭이나 종목 협상 등을 시도했고, IOC와 남한은 처음부터 북한의 공동주최 논의를 거부하며 2~4개 종목의 분산개최를 제안했으나,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회담은 결렬됐다. 이 과정에서 IOC는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산권 국가들의 88 서울올림픽 참가 명분을 쌓아가는 계획에서 남북 NOC 회담을 추진하였다.

셋째로 공동주최 논쟁의 함의에 있어서는 먼저 이 논쟁의 잠재된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과연 북한의 공동주최론은 진정성이 있는가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남한만의 올림픽은 분단국가의 통일 지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단 고착과 유엔 가입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았다. 남북이 함께 올림픽을 치러 내는 것이 평화와 친선을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과도 맞고 올림픽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합리적 방도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따라서 그 원칙과 주장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호응과 지지를 끌어냈다. 하지만, 북한의 공동주최 주장에 대해 남한은 처음부터 88 서울올림픽 방해 시도라고 규정했고 심지어 남침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여론전을 펴 실제적인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것이 당시 남북관계와 냉전 질서의 영향하에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2. 북한은 현실적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는가이다. 북한은 실제로 1986년 1월 이후 올림픽이 열릴 수 있다는 가정에서 여러 종목의 경기장을 짓기 시작했고, 1986년 7월에 제13차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가 결정되면서 숙박시설과 경기장 건설을 병행하였다. IOC 위원들은 1987년 6월에 능라도 경기장 등이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평양 내에서의 올림픽을 치를 인프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도 올림픽을 치를 시설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국경 개방의 문제가 걸림돌이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북한은 처음부터 올림픽을 위한 자유 왕래에 관해서는 문제없다고 강조했으나, 관문점을 통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보였다. 따라서 시설이 미비해서 분산개최를 포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3. 그렇다면 공동주최 주장에 대해 남한의 포용 가능성은 없었는가이다. 1985년 IOC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남한 정부와 IOC 간에는 회담의 결론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었고, 종목 분산에서도 2~3개 종목 이상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다. 북한은 IOC의 회담 제의에 공동주최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임하였으나, 4차에 걸친 회담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맴돌자 남북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한은 직접 회답은 거부하고 IOC와 함께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북한은 1987년 12월 남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공동주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의 제안이 현실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991년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극적으로 단일팀이 성사된 배경에는 남한의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논의가 가능하다.

4. 남한 정부는 왜 안보 불안을 키웠는가이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두환 대통령은 사마란치 위원장에게 안보 자신감을 보였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86 김포공항 폭발사건, 금강산 댐 수공납침 등 인위적인 안보 불안이 제기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결국, 남북 체제대결 연장에서 안보 불안은 남한 결집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로 인해 대립적 분위기가 고양되었고, 대북 불신감을 키워 남북 공동주최 결렬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공동주최 주장은 국제사회의 여론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남북 공동주최 논쟁의 이면에는 남북이 하나이나, 개별이나의 지향의 차이에서 오는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63년부터 남북은 하나의 단일팀을 구성하느냐 개별 국가로 참가하느냐의 지향이 서로 달랐던 이력의 연속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88 서울올림픽에서도 북한은 개별 국가로 참가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으며, 남한은 북한이 하나의 개별 국가로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마지막까지 요청하였다. 이것은 유엔 가입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유엔에서 남북은 서로가 국가 정통성 주장을 이어 가며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느냐 개별 의석으로 가입하느냐의 맥락과도 닿아 있다.

88 서울올림픽 공동주최 논쟁이 앞으로 남북 체육교류에 주는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체육교류는 하나를 지향할 것이냐, 개별을 지향할 것이냐의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과거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의 단일팀 구성 성공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단일팀 구성으로 인한 기억을 소환하여 앞으로 남북 체육교류에서 어떤 지향을 추구할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이러한 지향이 규정될 때 정부는 큰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실무 대표에게는 회담 재량권을 주는 이원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종목 결정까지 관여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정부 대표단의 재량권을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인 남북 협상이 진행되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모든 회담에서 북한은 남한과 동등한 지위 내지는 동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회 명칭이나, 종목 배정에 있어서 동등한 기준을 주장하며 남한과 대등한 관계를 요청했던 것을 볼 때 남북 교류에서 근원적 해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인다.

넷째,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추진과 관련하여 88 올림픽 공동주최 논쟁에서 북한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종목이 축구임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축구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갔고, 과거 남북 축구 교류의 역사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근 위성 사진에서 평양의 축구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남북이 축구로 교류협력을 하게 된다면 다른 대회에 비해 시너지 효과를 클 것이라 판단한다.

다섯째는 IOC 법률고문 피사르가 제안했던 남북 간의 물리적·심리적인 휴전과 융통성 있는 접근은 현시점에서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어떤 구실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먼저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 요소를 줄여 나가며, 협력의 파트너로 신뢰 회복에 힘을 기울여 남북의 심리적인 휴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체육교류는 적극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남북의 만남이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3국의 장소에서 스포츠 경기를 통해 만남과 교류를 다시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체육교류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스포츠 교류를 적극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88 서울올림픽 공동주최 논쟁에 관해서 남, 북 그리고 IOC의 문헌 등을 분석하여 세 주체의 주장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남북 체육교류에 있어서 지향 설정 논의는 역사적 맥락과 현시점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쟁점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 접수: 3월 8일 / 수정: 4월 2일 / 채택: 4월 8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조남훈, 『조선체육사 2』(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2).

2) 신문

“올림픽운동의 리념과 어긋나는 움직임,” 『로동신문』, 1981년 12월 3일.

“미국신문 뉴욕타임스 지가 1988년 올림픽 경기장소를 남조선의 서울이 아니라
다른곳으로 옮길것을 주장하였다,” 『로동신문』, 1984년 6월 7일.

“우리는 제24차올림픽과 전아메리카올림픽 장소문제에 대한 꾸바의 긍정적인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 『로동신문』, 1984년 12월 11일.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는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하여야 한다,” 『로동
신문』, 1985년 7월 31일.

“올림픽공동주최안은 실현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1985년 10월 21일.

“올림픽경기대회가 나라의 분열을 고착시키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김득준부위원장의 담화,” 『로동신문』,
1986년 6월 22일.

“아세아경기를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는 괴뢰도당의 모략책동을 규탄한다,” 『로
동신문』, 1986년 9월 21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북남 올림픽공동주최안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로동신문』, 1987년 3월 22일.

“모두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대상건설어로!,” 『로동신문』, 1987년 5월 13일.

“조선에서 올림픽경기대회를 조직할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체육시설들을 건
설,” 『로동신문』, 1987년 6월 18일.

“우리 나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
내였다,” 『로동신문』, 1987년 9월 16일.

“군축은 평화통일의 선차적 요구,” 『로동신문』, 1987년 9월 20일.

“올림픽을 위협하는 구분별한 군사소동,” 『로동신문』, 1987년 10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담화,” 『로동신문』, 1987년 10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성명,” 『로동신문』, 1988년 1월 12일.

“우리는 서울에서 단독강행되는 올림픽경기에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성명,” 『로동신문』, 1988년 9월 4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성경, 『갈라진 마음들』(파주: (주)창비, 2020).

대한체육회 엮음, 『대한체육회 90년1920~1990』(서울: 대한체육회, 2010).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 1』(서울: (주)랜던하우스중앙, 2005).

이진삼, 『별처럼 또 별처럼』(서울: 황금물고기, 2016).

장충식, 『시대를 넘어 미래를 열다(중재장충식회고록)』(용인: 노스보스, 2011).

정주영, 『이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서울: 솔솔출판사, 2020).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2권 청와대 시절』(파주: 자작나무숲, 2017).

2) 논문

구갑우,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형성 원인과 전개: 한반도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삼중모순’,”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2호(2018).

김재우·최지훈, “88 서울올림픽 유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3권 4호(2018).

박경호·옥광, “서울올림픽 개최 반대여론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1권 2호(2016).

박해남, “1988 서울올림픽과 시선의 사회정치,” 『사회와 역사』, 제110집(2016).

신종대, “서울의 환호, 평양의 좌절과 대처,” 『동서연구』, 제25권 3호(2013).

최진환, “IOC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승인에 관한 연구”(북한 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_____, “남북 스포츠 분단의 역사적 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승인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3호(2020).

3) 신문

“‘광’ 폭음에 5-6번 게이트 박살,” 『경향신문』, 1986년 9월 14일.

“78년 세계사격대회 서울서,” 『경향신문』, 1974년 9월 19일.

“AGF 집행위 채택 86년 아시안게임 서울 개최,” 『매일경제』, 1981년 11월 26일.

“IOC “2032 올림픽 우선협상지로 호주 선정” 남북 공동개최 먹구름,” 『헤럴드경제』, 2021년 2월 25일.

“문교부 학교체육 강화안 마련,” 『동아일보』, 1972년 10월 5일.

“본담공사 10월 초 착공,” 『매일경제』, 1987년 9월 18일.

“북한 88 오류 정치 오용 이 체육장관, 공동개최제의 철하요구,” 『매일경제』, 1985년 8월 2일.

“북한 『88』 교란 책동 위험증대,” 『경향신문』, 1986년 3월 11일.

“북한, 88대회 방해 가능성,” 『매일경제』, 1986년 3월 11일.

“북한도발 억지전략 세워야,” 『동아일보』, 1986년 3월 26일.

“북한의 『올림픽 음모』,” 『경향신문』, 1985년 8월 1일.

4) 기타 자료

국가기록원,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35차 평양, 1979.4.25.~5.6. 전6권(참가대
책 및 초청 교섭)”(1977~1978), 관리번호: DA0745903.

_____, “(1)북한및미수교국관계, (2)LA대회남북단일팀구성노력(재미교포중심
민간단체)”(1985), 관리번호: BA0774386.

“김포공항 테러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시사 IN』, 2020년 11월 6일.

외교부 공개문서, “1986년도 서울 아시아 경기 대회 유치 추진: 1980~81,” 전 2권,
V.2(1980)

외교부 공개문서,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전 16권, V.1~V.16.

3. 국외 자료

1) 단행본

Pound, Richard W., *FIVE RINGS OVER KOREA: The secret negotiations behind the*

1988 Olympic games in Seoul(Boston, New York, Toronto, London (simultaneously); Little, Brown & Company, 1994).

2) 신문

The New York Times, 1984, “How to Rescue the Olympic,” May 29.

3) 기타 자료

Castro, Fidel, “Mr. Juan Antonio Samaranch,”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16>.

Hwang, Jang-Yeop, “Bulgarian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65256>.

IOC, Executive Board, “1984-11-30 to 12-01 – Minutes EB Lausanne.pdf”.

_____, Executive Board, “1987-2 - Lausanne – Executive Board Minutes.pdf”.

_____, Executive Board, “1987-4 - Lausanne – Executive Board Minutes.pdf”.

Pisar, Samuel, “LETTER FROM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O ROH TAE-WOO WITH A PROPOSAL FOR FURTHER INITIATIV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522>.

Samaranch, Juan Antonio, “Mr. Fidel Castro Ruz,”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17>.

Samaranch, Juan Antonio and Doo-Hwan Chun,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INTERVIEW WITH CHUN DOO-HWAN ON NORTH KOREAN THREATS TO THE 1988 SEOUL OLYMPICS,”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75>.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Co-hosting of the 1988 Seoul Olympics

Choi, Jin Hwan(Sehyun High School)

This study examines the disput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urrounding the co-hosting of the Olympic Games, which ended up being fiercely debated by the two Koreas during the preparation process leading up to the 1988 Seoul Olymp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past in order to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inter-Korean sports exchanges in light of the two Koreas' desire to co-host the 2032 Summer Olympics — as implied in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For this stud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s (IOC), South Korea's and North Korea's assertions were summarized by analyzing public document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ata from the National Archives, issues of the *Rodong Sinmun*, minutes of the IOC meetings, and autobiographies. North Korea proposed a joint hosting of the 1988 games, driven by public opin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oped to hold the Olympics under equal conditions between the two Koreas.

However, the IOC and South Korea opposed North Korea's proposal and promoted inter-Korean 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 talks to build justific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communist countries for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1988 Seoul Olympics. The conclusion was already predicted from the initial IOC and South Korean response; the talks were held for three years, but the sides were unable to narrow their differences over North Korea's argument for co-hosting and South Korea's for decentralized hosting. The essence of this debate can be seen in the difference in each sides' intention — that is, to be seen as 'one' or 'individual' when it comes to sports exchanges.

Keywords: 88 Seoul Olympic, Co-hosting Olympic Games, inter-Korean sports talks